

日本植民統治의 經濟的遺産에 關한 研究

安 秉 直

目	次
I. 植民地와 植民母國	
II. 日本金融獨占資本의 商品 및 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	
III. 日本金融獨占資本의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의 朝鮮	
IV. 依存經濟體制	

I. 植民地와 植民母國

歷史上 資本主義의 發生과 더불어 地球上에 登場한 植民地의 歷史가 植民地 및 植民母國의 生産力發展水準에 의하여 그 本質이 規定되고 植民地 및 植民母國의 社會經濟的 諸條件에 따라 그 類型이 決定되었다고 한다면, 資本主義가 商業資本主義, 産業資本主義 및 帝國主義의 3段階로 發展함에 따라 植民地의 歷史도 變遷하여 왔으며, 資本主義가 未開社會를 支配하느냐, 封建社會를 支配하느냐에 따라서 그 類型도 相異하였던 것이다.⁽¹⁾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 같이 土着民의 人口가 稀薄한 地域에서는 西歐資本主義가 自己의 影像을 植民地에 그대로 浮刻시켰던 것이나, 이미 文明이 封建社會에까지 發展한 地域, 즉 人口가 稠密한 地域에서는 舊來의 封建的 利害와 끊임없이 妥協하면서 資本主義的 諸要素를 移植시키기에 努力하였던 것이다. 前者에 있어서 그들은 土着民을 絶滅시키든지 혹은 追放함으로써 그들이 意圖하였던 바의 資本主義社會를 建設할 수 있었으나, 後者に 있어서 그들은 一面에 있어서 封建社會를 分解시킨다는 積極的 活動과 他面에 있어서 封建的 諸殘滓를 強力히 保存시킨다는 消極的 活動에 의하여 資本主義社會속에 非資本主義的 要素를 包括하는 畸型的 資本主義를 發展시켰다.⁽²⁾

(1) E. M. Carus-Wilson, *Essays in Economic History*에 수록된 "The Economic Factors in the History of the Empire"를 參照하라.

(2) Paul 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p.141: "It was actually determined by the nature of Western European development itself. For the effect of the Western European capitalist penetration of the outside world were enormously complex. They depended on the exact nature of that penetration. They depended no less on the stage of development reached by the societies that are exposed to the foreign contacts."

우리의 關心은 多岐한 植民地의 諸類型과 3段階의 植民史의 發展段階中에서도 帝國主義의 侵略에 의하여 封建社會的 土臺위에 建設된 植民地의 資本主義에 있다. 帝國主義의 侵略에 의하여 封建社會的 土臺위에 建設된 植民地의 資本主義라고 할지라도 歷史上 여러 가지 類型이 存在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類型의 諸植民地가 가지고 있는 經濟的 特性을 捨象하고 나면 이러한 類型의 植民地가 갖는 一般性에 到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韓國資本主義라는 特殊한 植民地의 資本主義를 研究함에 있어서 帝國主義의 侵略에 의하여 封建社會的 土臺위에 建設된 植民地의 資本主義의 一般性만을 論한다는 것은 問題의 重要한 一面, 즉 韓國資本主義가 가지는 特殊性을 看過하는 것이기 때문에 世界植民地歷史, 특히 東南亞植民地歷史의 研究에서 究明된 植民地經濟의 一般性을 理論的 土臺로 하여 韓國資本主義의 特殊性을 加味시키는 것이 穩當한 態度라 생각된다.

資本主義가 獨占資本主義段階에까지 發展하게 되면 以前의 產業資本主義와는 質的으로 相異한 金融資本家의 寡頭支配現象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先進資本主義國內에 少數獨占財閥이 形成되어 그들은 國內市場을 完全히 獨占하게 되고, 資本의 자유로운 競争을 止揚하는 한편 賃金水準의 引下에 強力한 壓力을 加한다. 自由競争의 撤廢와 賃金水準引下의 強迫으로 少數의 獨占者들에게 國內에서 投資機會를 發見하지 못하는 過剩資本이 蓄積되며 消費者를 發見하지 못하는 過剩生産物이 存在하게 된다. 資本家들은 이러한 經濟的 矛盾을 植民地의 掠奪戰爭과 植民地에로의 資本輸出에서 解決하려고 하기 때문에 高度資本主義의 對外的 特質은 植民地에로의 資本輸出에 있다. 이러한 植民地에로의 資本輸出은 資本財의 輸出만을 同伴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消費財의 輸出을 同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高度資本主義段階에 到達한 先進資本主義諸國의 對外的 特質이 資本輸出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產業資本主義段階에서 行하던 一般商品 특히 消費財의 輸出도 活潑히 展開하였다.

先進資本主義諸國의 對植民地 資本主義商品의 輸出은 植民地諸國에 대하여 非資本主義的 諸要素의 破壞를 要求하였던 것이며, 植民地에 있어서 資本主義의 建設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植民地에 있어서 資本主義의 建設은 舊來 封建秩序內에 溫存하던 自然經濟의 解體를 意味한다. 植民地에 있어서 自然經濟의 解體는 先進資本主義「文明」諸國이 封建「非文明」諸國에게 文化的 諸惠澤을 賦與하기 위한 物的 土臺의 構築이라기 보다는 先進資本主義諸國 少數獨占資本家들의 物質的 要求였던 것이다. 즉 先進資本主義諸國 少數獨占資本家들의 超過利潤, 즉 獨占利潤을 保障해 주기 위한 物質的 土臺의 建設인 것이다. 植民地諸國에 있어서 民族資本家의 沒落과 買辦化, 農村에 있어서의 廣範圍한 封建的地主制의 創

出과 農民의 奴隸狀態, 土地를 喪失한 農民의 餓死, 不法的인 土地의 強奪과 自然資源의 強占, 植民地人民의 經濟와는 無關한 自足의 大獨占企業의 建設, 최후로 植民地에 있어서의 產業의 有機的 關聯性的 破壞, 이러한 모든 條件은 外來獨占家들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保護·育成·強化되었던 것이다.⁽³⁾

帝國主義段階에 있어서 先進資本主義 對 過去封建社會에까지 發展하였던 植民地間의 國際關係가 以上과 같은 一般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既存研究를 土臺로 하여 日本金融獨占資本主義와 植民地 韓國間의 經濟關係의 本質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特徵的 現象을 가지고 究明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세가지의 特徵을 個別的으로 列擧함으로써 過去 日本植民地時代에 있어서의 日本과 韓國間의 經濟關係의 本質이 充分히 解明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帝國主義諸國과 植民地와의 關係에 있어서 다음의 세가지 事實이 가장 支配的인 現象인 限 本質把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本研究은 未開拓分野에 대한 最初의 試圖이기 때문에 綜合的 體系의으로 이 分野의 經濟的 本質을 解明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몇가지의 支配的 現象만을 分析對象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 特徵的인 現象은 다음의 세가지로 區分할 수가 있다.

① 日本金融獨占資本의 商品 및 資本投下市場으로서 韓國이 얼마나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었는가?

② 日本金融獨占資本의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 韓國은 日本資本主義發達에 얼마만큼 寄與하였는가?

③ 어떠한 經濟構造위에서 以上の 두가지 現象이 可能하였는가?

이 세가지 質問에 대하여 答함으로써 우리는 日本植民地時代의 國際關係의 本質을 어느 정도 理解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I. 日本金融獨占資本의 商品 및 資本投下 市場으로서의 朝鮮

1. 日本貿易의 발자취

日本金融獨占資本의 商品 및 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의 地位를 統計的으로 밝히기 前에 우선 日本資本主義의 發展過程과 日本貿易의 發展過程을 一瞥함으로써 對植民地貿易 關係에 있어서 日本經濟가 무엇을 追求하였는가를 略述하려고 한다.

(3)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Chapters 27, 28, 29 參照.

『日本貿易精覽』은 1868年으로부터 1934年까지의 日本貿易을 9個의 段階로 區分하고 또 이 9個의 段階를 4個의 時期로 區分하였다.⁽⁴⁾ 同書에서 行하여진 段階區分은 國際收支의 短期的 變動과 貨幣價値의 相對的 變動에 重點을 두고 區分된 것이며 時期區分은 貿易額統計의 長期的 趨勢에 의하여 區分된 것이다. 이와같이 『日本貿易精覽』에 의한 日本貿易의 段階區分은 兩者 모두 貿易量의 變動을 中心으로 하는 區分인데, 이와같은 日本貿易의 數量的 變動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意圖하는 바 植民地下的 朝鮮과 日本과의 經濟關係의 本質에 到達하지는 못할 것이다. 日本貿易構造의 變化는 日本經濟構造變化의 結果로 보이기 때문에 日本經濟構造와 關聯하여 日本貿易構造를 把握하여 日本貿易의 發展 段階를 다음과 같이 區分할 수 있다.

첫째 段階는 日本資本主義 草創期の 貿易이라고 볼 수 있는 1868—1893年까지이다. 租稅의 近代化, 「인플레이션」等 國內의 方策에 의하여 原始資本蓄積을 遂行하는 한편 西歐資本主義의 原始資本蓄積過程에서 一般的으로 볼 수 있는 植民地의 掠奪貿易을 위하여 植民地獲得戰爭을 準備하던 時期이다. 對外貿易에 있어서는 貿易의 主導權을 先進資本主義諸國에 완전히 奪取當하고 있었으며, 交易條件도 日本에 상당히 不利하였다. 말하자면 當時 日本은 先進資本主義諸國의 商品市場이었으며, 1858年의 通商條約과 1866年의 改定約書에 의하여 輸出入商品에 모두 從價 5%의 關稅를 賦課하지 않을 수 없었다. 歐洲 및 美國과의 貿易이 70—80%를 占하고 있었으며 朝鮮에의 強壓的 開港要求等 植民地獲得에 奔忙하였다. 貿易商品의 構造를 보면 消費財이든 生産財이든 資本主義商品을 先進資本主義諸國으로부터 輸入한다는 從屬的 形態를 取하였으나, 先進資本主義商品을 仲繼한다든지 自國의 生産物을 極東諸國에 輸出한다는 帝國主義的 萌芽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둘째 段階는 資本主義確立期에 있어서의 貿易이라고 볼 수 있는 1894—1904年에 이르는 時期이다. 金本位制度의 確立, 産業革命의 遂行等으로 特徵지을 수 있다. 이 時期를 통하여 日本資本主義는 先進資本主義諸國에 대한 從屬的 形態를 多少 脫皮하면서 1894年의 淸日戰爭, 1904年의 露日戰爭等 公公然한 帝國主義政策을 敢行하기 시작하였다. 低賃金を 基盤으로 하는 紡織工業의 成長으로 先進資本主義諸國에 對抗하고, 植民諸國에 對한 輸出強化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였다. 그러나 이 時期를 통하여 日本資本主義는 先進資本主義諸國에 對해서는 纖維製品을 中心으로 하는 消費財를 輸出하고 生産財를 輸入한다는 貿易構造의 從屬的 形態와 植民地 및 半植民地諸國에 대해서는 消費財工産物을 輸出하고 食糧 및 原料를 輸入한다는 帝國主義的 形態의 基礎를 確立하였다. 日本資本主義가 先進資本

(4) 東洋經濟新報社編, 『日本貿易精覽』 pp. 16—44 參照.

主義諸國에 대하여 從屬的 立場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은 日本資本主義가 先進資本主義諸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뒤늦게 出發하였을 뿐만 아니라 農村에 있어서 封建的 要素를 완전히 撤廢하지 못하고 半封建的 要素를 自己속에 內包한 채 成長하였기 때문이다. 工業의 成長에 따른 農產物, 특히 食糧과 原料의 不足狀態는 資本主義諸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日本과 같이 食糧 및 原料의 深刻한 그리고 慢性的인 不足現象은 農村에 있어서의 半封建性에 의한 農業生産性의 落後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段階는 獨占段階로의 移行으로부터 第1次世界大戰 終末까지의 貿易이며 1904年에서부터 1918年에 이르는 時期이다. 前期에 進行되고 있던 産業革命은 中斷되고 世界的인 不況期에 直面하여 萌芽의 이기는 하나 獨占體의 形成이 나타났다. 第1次世界大戰으로 國際收支의 甚한 逆調은 多少 克服되기는 하였지만, 同期間을 통하여 日本은 18億圓이라는 巨額의 外國資本을 輸入하였다. 한편 植民地 및 半植民地諸國에 대해서는 상당한 資本輸出이 行하여졌으며 1904年의 鐵道國有法, 1906年의 南滿洲鐵道株式會社設立勅令, 綿布滿洲輸出組合設立, 1910年의 朝鮮合併 등이 行하여 졌다. 이와같이 日本經濟가 資本主義成立以後 10년도 經過하기 前에 獨占段階로 移行하였다는 事實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 基因한 것이다. 첫째 日本을 둘러싼 先進資本主義가 이미 獨占段階에 移行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에 對應할 必要가 있었다는 것, 둘째 日本資本主義는 그 特殊한 成立條件으로부터 工業을 위한 國內市場이 좁아 처음부터 外國市場을 強力히 要求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 日本經濟構造의 變化는 工業의 機械化가 進行되고 化學工業 造船工業 近代의 鑛業 其他 重工業發達의 基礎가 確立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經濟構造의 變化는 貿易面에도 나타나 輸出品中 半製品으로부터 完製品의 比重이 높아지고 輸入品에는 重化學品의 比重이 減少되었다.

넷째 段階로는 戰後恐慌과 그 回復期의 貿易이며 1919年으로부터 1936年에 이르는 時期이다. 이 時期는 다시 두개의 時期로 區分할 수가 있는데, 1919—29年의 戰後恐慌期과 1930—36年의 世界恐慌으로부터의 回復期가 그것이다.

戰後恐慌期을 통하여 日本貿易量은 輸出入 모두 상당히 上昇하였으나 輸入은 前期의 倍以上 增加하여 未曾有의 入超를 示顯하고 交易條件도 日本에 상당히 不利하였다. 戰後 1年餘 好況이 繼續하긴 하였지만 1920年 3月 日本株式市場에서의 株價의 暴落을 契機로 不況은 全世界的으로 波及되었으나, 先進資本主義諸國은 1923年부터 漸次 回復하여 戰後의 相對的인 安定期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本來 脆弱한 基礎위에 서 있는 日本資本主義는 그 實情이 그와 判異하였던 것이다. 戰後에 歐洲商品이 亞細亞市場에 復歸하자 戰爭中에

構築하여놓은 日本商品市場은 착착 崩壞되기 시작하여 輸出은 停止狀態를 免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國內에는 累積된 不景氣의 結果 1927年의 金融恐慌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恐慌을 打開하기 위하여 金解禁을 斷行하였고 産業의 合理化(즉 獨占化)를 圖謀하였으나 1930年에 27,552萬圓, 1931年에 43,310萬圓이라는 巨額의 正貨를 輸出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物價 및 賃金의 下落과 失業群의 膨大를 招來하게 되고 農業恐慌을 結果하였던 것이다.

農業恐慌은 金解禁을 契機로 日本이 英美市場으로부터 1億圓의 外資를 導入하는 등, 先進資本主義諸國과의 友好維持를 위한 最後의 努力에 終止符를 찍게 하였던 것이며, 1931年 9月 英國의 金本位制度의 停止 및 1931年 12月 日本의 金輸出再禁止等 資本主義諸國 相互間의 矛盾을 露骨화하였던 것이다.

다음 恐慌으로부터의 回復期에 있어서는 世界經濟의 「블록」化, 獨占運動의 強化 및 産業統制의 強化 등으로 特徵된다. 日本은 世界經濟의 「블록」化에 앞장서서 滿洲事變을 敢行하고 뒤이어 中日戰爭을 挑發하고 日本經濟「블록」의 形成에 着手하였다. 國內에 있어서 大資本家들은 恐慌을 克服하기 위하여 生産制限, 販賣 및 價格協定, 輸出協定 등을 內容으로 하는 「카르텔」運動을 展開하였다. 政府도 이러한 大資本의 運動에 呼應하면서 「産業合理化政策」에 便乘하여 1931年에 重要産業法, 工業組合法을 制定하고 輸出組合法을 改正하였으며 1932년에는 商業組合法을 制定하였다.

이 時期의 貿易을 보면 前期에는 貿易의 激減을 招來하였으며 後期에는 이를 脫皮하기 위하여 果敢한 「덤핑」政策을 施行하였다. 이러한 努力의 結果 1930년에는 1929년에 비해 輸出入量이 33.1%나 下落하였던 것을 1932년에는 輸出이 23%, 輸入이 16% 增加하게 되었다.

이 時期의 貿易商品構造를 보면, 輸出增加中에 特徵적으로 機械, 鑛金屬, 化學製品의 比重이 크게 增大하였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滿洲事變의 影響으로 輕工業으로부터 重工業에의 産業再編成의 結果로 보여진다. 이러한 事實은 물론 中小企業에 의하여 生産되는 電球, 성냥, 고무製品, 自動車工業의 製品이 이 時期의 輸出을 代表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며, 依然히 輸出의 過半을 占하는 것은 纖維品이었다.

다섯째 段階는 第2次世界大戰과 貿易의 國家統制期이며 1937年으로부터 1945年에 이르는 時期이다. 1937年 1月 外換管理法의 改正, 貿易許可制度의 採擇等 貿易의 積極的 統制로부터 戰時經濟로 突入하였다. 世界經濟의 「블록」化의 結果 對先進資本主義와의 貿易은 縮小되지 않을 수 없었고 對圓域貿易을 強化하였다. 國際收支에 있어서 先進資本主義와의 貿易은 이 時期에 繼續 貿易赤字를 示顯하였던 것이며, 圓域과의 貿易은 繼續 赤字를 보였

다. 이러한 事實은, 日本은 아직도 先進資本主義諸國에 對해서는 依存關係에 있었기 때문에 軍需物資, 戰略物資를 先進資本主義諸國으로부터 輸入하지 않을 수 없었고 圓域貿易에 있어서는 帝國主義的 立場에 있었기 때문에 圓域에 대하여 資本輸出이 活潑히 展開된 結果라 하겠다.⁽⁵⁾

2. 朝鮮의 輸入商品

1876年 開港以來 1945年 解放에 이르기까지 朝鮮은 繼續하여 日本의 商品市場으로 役割하여 왔던 것이나 朝鮮이 日本의 商品市場으로서 重要性을 갖게 된 것은 日本의 産業革命以後의 일이다. 日本이 自國內에서 原始資本蓄積過程을 겪고 産業革命期에 이르기까지 植民地를 獲得하고 植民地에로의 商品輸出을 爲하여 積極的으로 努力해 온 것은 事實이나 植民地에 있어서의 封建的 閉鎖性과 自然經濟의 未解體로 朝鮮에서 커다란 市場을 發見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日本自身도 對先進資本主義國과의 貿易에서 오히려 先進資本主義諸國의 商品市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先進資本主義諸國에 農產物과 土產物

(5) 松井 清編『日本貿易讀本』pp. 25-44를 参照하라. 우리는 本文에서 日本經濟의 成長에 따른 對外貿易의 成長過程을 略述하였다. 여기서 참고로 日本貿易의 地域別特徵을 同著者は 아래와 같이 指摘하고 있다.

『……戰前日本貿易의 特徵을 先進資本主義國에 對한 依存性과 植民地 從屬國에 對한 侵略性을 가지고 性格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日本資本主義의 特殊한 發展方向이 貿易面에 나타난 것임과 同時에 世界資本主義가 서서히 帝國主義段階에 突入하려고 할 때에 뒤늦게 世界市場에 參加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日本資本主義다운 姿勢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戰前 日本貿易의 貿易商品構造와 貿易市場構造와를 統一的으로 把握하여 簡單히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第1「루트」——生絲를 輸出하여 棉花原油, 高級機械等을 輸入하는 對「아메리카」貿易=後進國型. 生絲는 純粹히 日本에서 生産되는 輸出商品으로 戰前에 綿織物다음으로 重要한 地位를 占하였으며, 말하자면 日本貿易의 起動點이라고 하는 性格을 갖는 反面, 그 輸出額의 伸縮은 奢侈品으로서의 性格때문에 전혀 「아메리카」의 景氣變動에 依存하여 있었던 것이다. 낡은 生産諸關係와 뒤떨어진 生産方法을 背景으로 하는 生絲輸出에 依하여 日本經濟는 從屬的으로 先進資本主義諸國과 結合되고 그곳으로부터 必要商品을 輸入하였다.

② 第2「루트」——綿製品을 輸出하여 重工業原料(鐵礦, 銑鐵, 非鐵金屬, 「알미늄」, 生 고무)를 輸入하는 對東南亞細亞貿易=後進國型과 帝國主義型의 混合形態. 이 地域의 大部分은 「유럽」先進國, 특히 英國의 植民地 從屬國이었다는 것으로는 帝國主義型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시에 그곳에서는 英國의 「랑카셔」綿業과 격렬한 競爭關係에 놓이며, 주로 日本綿業에 있어서 低賃金, 職場等에 있어서 中小企業等을 基盤으로 하여서만이 이것과 對抗할 수 있었다고 하는 點에서는 後進國型을 나타내고 있다.

③ 第3「루트」——織維品, 重工業品을 輸出하여 食糧, 重化學工業原料를 輸入하는 對滿洲, 中國貿易(朝鮮, 臺灣의 移出入도 이것에 準한다)=帝國主義型. 뒤늦게 出發한 日本資本主義의 急速한 發達의 表現임과 同時에 그것을 促進하는 要因으로서의 이 部分에 對한 貿易은 注目할 만하다. 그것은 이 地域住民의 生活을 破壞하고 市場 및 資源을 獨占함에 의하여 支持되어 있었던 것으로 廣範한 民族의 抵抗에 遭遇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을 輸出하고 資本主義的 商品을 輸入한다는 地位에 있었으므로 朝鮮市場에 積極的으로 輸出할 만한 商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의 商品市場으로서의 朝鮮의 地位를 考察함에 있어서 우리는 日本資本主義가 獨占資本主義段階에 들어서서 朝鮮을 그들의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 積極的으로 開發한 以後부터 考察하는 것이 意味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日本의 商品市場으로서의 朝鮮의 地位는 朝鮮植民地史의 變遷과 더불어 相異한 樣相을 띠고 나타났다. 朝鮮植民地史를 1910—1929年까지의 前期와 1930—1945年까지의 後期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할 수가 있다. 前期에 있어서 朝鮮은 日本의 纖維製品 特히 織物의 市場이었으며 後期에는 日本의 重工業製品 特히 金屬製品과 機械의 市場이었다. 勿論 纖維製品은 後期에 있어서도 日本으로부터의 輸入額의 相當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重工業製品은 1930年 以來 日本資本의 積極的進出과 關聯하여 重要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었다.

朝鮮植民地史를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前期를 日本商品市場으로서의 朝鮮으로 보고 後期를 日本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으로 區分하는 實證的根據는 다음과 같다.

日本纖維製品의 對朝鮮輸出事情을 보면 第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1930年 동안에

地 域 別 輸 出 入 構 造

<第 1 表>

單位：%

年 度	日 本		中 國		英·獨·美		其 他 諸 國		總 計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1905	73.7	78.0	18.6	21.8	7.3	0.0	0.4	0.2	100.0	100.0
1906	77.3	85.0	13.8	8.6	8.7	0.2	0.2	6.2	100.0	100.0
1907	66.0	76.7	10.8	19.2	21.4	0.0	1.8	4.1	100.0	100.0
1908	58.6	77.7	11.8	15.9	27.6	0.4	2.0	6.0	100.0	100.0
1909	59.6	74.4	12.2	19.6	25.6	1.0	2.6	5.0	100.0	100.0
1910	63.7	77.2	9.7	15.2	24.9	1.7	1.7	5.9	100.0	100.0
1911	63.0	70.7	10.0	16.0	25.0	5.2	2.0	8.1	100.0	100.0
1912	60.7	73.3	10.5	19.3	26.6	1.4	2.2	6.0	100.0	100.0
1913	56.5	82.0	13.6	13.5	23.9	1.1	6.0	3.4	100.0	100.0
1914	61.8	83.1	12.3	13.1	19.7	0.4	6.2	3.4	100.0	100.0
1915	70.2	82.6	13.6	11.3	14.2	0.1	2.0	6.0	100.0	100.0
1916	70.5	75.6	12.8	14.2	15.1	1.8	1.6	8.4	100.0	100.0
1917	70.7	77.3	12.3	14.3	15.2	0.4	1.8	8.0	100.0	100.0

資料：『統監府統計年報』 및 『朝鮮貿易年表』

朝鮮輸入總額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大部分 日本으로부터의 輸入額이다.

1931—1945年까지 日本纖維製品의 輸入額은 朝鮮輸入額의 20—30%를 占하고 있지만 이 時期에 있어서는 第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屬 및 同製品과 機械類가 總輸入額의 25—35% 内外를 占하고 있어 日本의 資本輸入을 同伴하였다는 點이 特徵的이다. 統計的으로 日本의 資本輸入量을 보면 1931年에 朝鮮에 投下된 日本投下資本은 不過 2,128,792

主要品目別 輸出入 推移

<第2表>

單位：%

品 目	1918	1921	1925	1929	1930	1932	1934	1936	1937	1938	1939
輸 移 出 總 額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米	39.9	42.5	50.7	43.1	41.1	46.7	48.2	42.3	33.9	35.5	17.3
綿 및 繭	7.2	2.7	6.4	3.3	3.7	1.6	2.0	2.2	1.5	1.1	1.3
大 豆	6.2	10.5	6.0	6.4	6.6	6.6	3.9	4.0	3.4	2.5	2.1
織 物	0.1	1.0	2.6	1.1	3.0	3.6	3.8	4.1	5.8	5.3	6.0
絲 纜	0.5	6.1	8.7	9.4	9.8	7.0	4.8	4.1	4.7	3.7	4.7
金 鐵	1.0	1.1	0.4	0.6	0.4	0.4	0.5	1.1	0.9	6.8	0.7
鐵 炭	0.7	0.8	0.3	0.5	0.6	0.3	0.2	0.2	0.3	0.3	0.3
石 炭	0.4	0.6	0.6	0.8	0.9	1.2	1.3	1.1	1.1	1.4	1.4
金 屬 및 機 器	—	—	—	—	3.1	4.6	8.0	9.4	13.2	14.3	21.3
輸 移 入 總 額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粟	2.0	0.4	8.5	4.9	5.9	5.0	3.1	3.0	1.7	1.3	1.5
砂 糖	2.1	1.9	1.7	2.3	2.5	2.8	1.3	1.4	1.1	1.0	0.9
酒 類	1.3	1.9	1.1	1.2	1.1	1.0	0.7	0.5	0.4	0.4	0.4
織 物	23.0	23.6	20.8	16.8	17.0	17.7	17.8	12.9	12.2	13.4	13.3
絲 纜	4.1	6.8	10.1	7.4	6.3	8.1	7.9	6.5	7.0	5.9	3.8
衣類 및 同附屬品	1.7	2.7	4.5	5.5	5.0	5.9	6.4	6.1	5.3	6.0	5.8
礦 油	2.0	2.2	2.7	3.3	3.0	4.6	3.9	4.2	—	—	—
金屬 및 同製品	8.8	7.0	5.7	9.4	9.3	9.4	10.9	12.9	19.8	18.1	18.1
機 器 類	11.4	5.9	3.6	7.4	7.9	6.3	8.1	11.0	12.0	12.5	14.9
化 學 肥 料	0.0	0.1	0.3	2.5	1.8	0.5	0.8	3.2	2.3	2.6	1.3

註：輸移入의 金屬 및 同製品에는 鐵을 包含함.

資料：『朝鮮貿易年表』

千圓에 不過하였으나 1941年末 現在 7,329,592千圓에 達하여 10年間に 무려 52億圓이 增加하였다. 勿論 이들 統計에 對한 信憑性에 對해서는 後述할 豫定이며 또 이들 統計數字가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을 말한다기 보다 朝鮮에 投下된 日本人資本投下額을 表示하는 만큼 이 期間을 통한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을 正確히 말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들 統計數字들이 日本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을 特徵지워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第3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植民地時代를 通하여 朝鮮의 總輸入額中 消費財가 차지하는 比率이 1939年度를 除外하고는 恒常 50%를 上廻하고 있다는 事實은 日本植民地時代의 前後期를 通하여 朝鮮은 日本消費財商品의 輸出市場이었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는 重要한 根據를 提示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事實은 後期에 있어서 生産財의 輸入도 總輸入額의 50%線을 肉迫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資本의 輸入은 生産財의 輸入을 同伴하는 것이 一般的인 趨勢이나 반드시 生産財만을 同伴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에서 또 後期에 있어서는 輸入貿易에 있어서 資本의 導入이 主導的役割을 擔當하여 왔다는 點에서 後期를 日本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이라고 特徵지을 수 있다. 그리고 또 留意할 點은 資本輸

<第3表>

段階別 輸入商品構造

單位：%

	1912	1919	1929	1935	1939
輸入總額	100	100	100	100	100
1. 消費財	66.3	61.0	58.7	52.7	49.8
農産物	10.8	13.3	17.5	14.7	11.5
工産物	55.5	47.7	41.2	38.0	38.3
2. 生産財	31.3	34.6	33.6	38.9	43.8
原料財	14.7	18.2	18.6	20.2	25.0
施設財	10.9	7.2	7.9	9.9	4.7
機器類	5.7	9.2	7.1	8.8	14.1
3. 其他	2.4	4.4	7.7	8.4	6.4

註：本表는 輸出總額에서 小包 手荷物 및 旅客携帶品을 差減한 것을 100으로 하였음.
資料：『朝鮮貿易年表』

入과 商品輸入은 서로 排他的인 것은 아니며 相互補完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에 商品市場으로서의 朝鮮이나, 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이나를 區分하는 가장 重要한 點은 日本의 商品輸出이 主導的이나 또는 日本의 資本輸出이 主導的이나에 달려 있다 하겠다.

1) 日本으로부터의 商品輸入

日本의 對朝鮮輸出의 意義를 吟味함에 있어서 먼저 日本의 總輸出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評價하고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朝鮮植民地史를 前後期로 나누어 前期에는 日本纖維製品輸出市場으로서의 朝鮮을, 後期에는 日本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을 吟味하여 보기로 한다.

日本의 總輸出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第4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1912年間 平均 6.1%에 不過하던 것이 1934—1936年間에는 平均 21.5%로 上昇하였다.

<第 4 表> 日本輸出總額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の 輸出總額(A)	對朝鮮輸出(B)	B/A %
1910—1912	1,639,136,717	100,162,532	6.1
1913—1915	2,176,176,405	121,011,119	5.6
1916—1918	5,122,863,083	242,428,768	4.7
1919—1921	6,080,705,689	484,511,968	8.0
1922—1924	5,671,547,407	539,516,412	9.5
1925—1927	7,467,387,209	752,332,291	10.1
1928—1930	6,875,601,248	889,359,958	12.9
1931—1933	5,632,409,024	816,257,624	14.5
1934—1936	7,649,292,459	1,646,354,459	21.5

註：實數는 3 個年의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이와 같이 日本의 對朝鮮貿易이 飛躍的으로 發展하게 된 것은 日本植民政策에 依하여 朝鮮의 生産力이 一般的으로 發展함에 따라 隣接國인 日本과의 貿易이 一般的으로 發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 基因하기도 하지만 本質的으로는 植民地經濟體制의 植民母國經濟體制에 對한 依存性의 強化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1910—1936 年에 이르기까지 日本總輸出의 對朝鮮輸出比率의 變動過程을 보면 1916—1918 年의 그것은 1910—1912 年의 6.1%보다 낮은 4.7%로 下落하였으며 1919—21 年以後에는 相當한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16—1918 年間 第 1 次世界大戰의 時期를 通하여 日本은 對先進資本主義國에 對한 輸出에 汲汲한 나머지 朝鮮과의 貿易을 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며 1919—1921 年以後 日本은 第 1 次世界大戰中에 開拓해 놓았던 東南亞, 「아프리카」市場으로부터의 後退, 國內의 繼續的인 不況等으로 朝鮮市場開拓에 積極的 活動을 하였다는 것을 意味한다.

前期에 있어서 日本商品市場으로서의 朝鮮의 地位를 決定짓는 纖維製品의 輸入을 考察해 보면 第 5, 6, 7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纖維製品의 對朝鮮輸出額은 日本總纖維製品輸出額의 10% 内外를 占하는데 不週하다. 그러나 前期에 있어서 日本의 對朝鮮輸出比重이 6—7%에 不週하였다는 것을 考慮하면 朝鮮總輸入額의 30—40%에 該當하는 量이다.

絲纒, 繩索 및 同材料의 對朝鮮輸出比重은 第 5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期에 있어서는 不週 1—2%에 지나지 않았으나 後期에 와서는 7%까지 上昇하였다. 그러나 그 絕對額에 있어서는 衣類 및 同附屬品보다 많은 편이며 1918 年 以後에는 朝鮮輸入總額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絲纒, 繩索 및 同材料의 輸入이 前期에 있어서 보다 後期에 있어서 急激한 增加를 보인 것은 同商品이 半製品으로서 紡織工業의 原料로 使用되는 것이 많기

<第5表> 日本絲織 繩索 및 同材料 輸出總額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絲織 繩索 및 同材料 輸出總額(A)	對朝鮮輸出(B)	B/A %
1910—1912	597,485,461	7,915,444	1.3
1913—1915	769,754,905	8,992,389	1.2
1916—1918	1,478,446,974	16,777,413	1.1
1919—1921	1,926,321,891	24,877,413	1.3
1922—1924	2,341,217,196	31,634,599	1.4
1925—1927	2,757,695,994	51,360,967	1.9
1928—1930	2,135,402,104	54,559,503	2.6
1931—1933	1,292,194,750	51,076,741	4.0
1934—1936	1,514,206,000	112,766,000	7.4

註：實數는 3 個年의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第6表> 日本布帛 및 同製品 輸出總額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布帛 및 同製品 輸出總額(A)	對朝鮮輸出(B)	B/A %
1910—1912	247,307,857	27,700,927	11.2
1913—1915	331,049,368	31,662,792	9.5
1916—1918	866,086,987	65,537,132	7.6
1919—1921	1,544,467,792	145,255,719	9.4
1922—1924	1,344,371,705	132,531,824	9.9
1925—1927	1,964,787,354	174,737,096	8.9
1928—1930	1,793,130,968	186,041,034	10.4
1931—1933	1,572,495,130	177,398,762	11.3
1934—1936	2,838,863,000	278,068,000	9.8

註：實數는 3 個年의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第7表> 日本衣類 및 同附屬品 輸出總額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衣類 및 同附屬品 輸出總額(A)	對朝鮮輸出(B)	B/A %
1910—1912	61,132,226	4,262,299	7.0
1913—1914	94,745,643	4,622,035	4.9
1916—1918	224,635,382	6,469,789	2.9
1919—1921	249,975,706	14,915,141	6.0
1922—1924	186,593,174	34,736,387	18.6
1925—1927	265,583,318	53,208,256	20.0
1928—1930	349,247,122	63,957,100	18.3
1931—1933	382,247,595	59,182,464	15.5
1934—1936	645,887,000	117,127,000	18.1

註：實數는 3 個年의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때문에 朝鮮에 紡織工業이 發達하자 그 輸入額도 急激히 增加하였다고 볼 수 있다.

織物인 布帛 및 同製品의 比重은 日本織物輸出總額의 10% 内外를 차지하고 있다. 1910—1912 年間の 平均은 11.2%였던 것이 1916—1918 年間에는 그것은 7.6%로 下落하고 1931—1933 年間の 그것이 11.3%까지 上昇하였다는 事實은 前에도 指摘한 바와 같이 第1次 世界大戰以後의 日本의 不況等に 基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衣類 및 同附屬品の 輸入은 第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2—1924 年間 日本의 同商品輸出總額의 20% 内外의 比重을 占하고 있으나 그 總額에 있어서는 오히려 絲縷類보다 적다. 그러나 纖維製品中의 다른 商品보다 그 比重이 높은 것은 다른 地域보다 朝鮮에 進出한 日本人이 많을 뿐만 아니라 朝鮮의 生活樣式이 日本의 그것에 同化되어 갔다는 一面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같이 前期에 特徵的인 日本纖維製品의 輸入이 조금도 그 重要性을 喪失하지 않았다는 點은 日本의 資本輸入으로 特徵되는 後期에 있어서도 日本商品市場으로서의 朝鮮의 位置가 조금도 變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는 하나, 日本輸出商品의 大宗을 이루고 있던 纖維製品에 對한 朝鮮의 輸入比重이 不過 10% 内外에 지나지 않았다는 事實은 무엇에 基因하는가?

이 質問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解答이 있을 수 있다. 첫째 纖維製品의 輸出은 日本輸出商品中 大宗을 占하고 있었으므로 그 輸出額이 巨額에 達하였던 것이나 朝鮮의 對日本輸入貿易이 日本의 纖維製品輸出額보다도 적었다는 點, 둘째 纖維製品의 輸出은 日本의 外貨獲得의 大宗으로서, 低賃金を 基盤으로 하여 對先進資本主義經濟圈에로의 輸出을 積極 獎勵하였다는 點, 셋째 朝鮮의 需要能力에 限界가 있었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2)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

日本資本이 朝鮮에 導入되기 시작한 것은 1882年 부터이지만 日本人民間資本이 導入되기 시작한 것은 1899年 澁澤子爵이 京仁鐵道株式會社를 設立한 以後의 일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日本資本이 本格的으로 輸入되기 시작한 것은 1905年 第1次韓日議定書가 締結되어 朝鮮이 日本의 保護國이 된 以後의 일이다.

初期에 朝鮮에 進出한 資本은 行政費 軍事費等 純粹한 資本投下로 볼 수 없는 植民地統治費가 最大의 것이었으며 1904年에 設立된 朝鮮興業會社와 1907年에 設立된 東洋拓殖株式會社가 各各 資本金 100萬圓, 1000萬圓을 갖고 大的으로 土地를 買收하였다고 하나 그 金額은 總督府의 軍事費 및 行政費에 比하면 얼마되지 못하였다. 其外 日本資本의 進出은 零細資金들이었으며 대개 朝鮮에서 高利貸를 目的으로 進出한 것이어서 高利貸에서 많은

資本을 蓄積하여 土地에 投資하는 것이 一般的이었다.⁽⁶⁾

韓日合併以後 즉 朝鮮과 日本이 單一한 經濟圈이 된 以後에 朝鮮에 日本資本이 얼마나 進出하였는가에 관한 公式의 記錄은 없기 때문에 1931 年末 現在로 朝鮮에 投下된 總日本資本量을 調査한 朝鮮銀行調査課의 『朝鮮에 있어서의 內地資本의 流出入에 關하여』와 1941 年末 現在로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量을 調査한 京城商工會議所의 『朝鮮에 있어서의 內地資本의 投下現況』을 檢討하여 1930 年 以前의 日本資本導入狀況과 1931 年以後의 日本資本導入狀況을 明示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目的하는 바는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導入된 資本量을 正確히 計算한 다든가 日本資本이 朝鮮植民地史의 發展段階에 따라 어떠한 性格을 갖고 있었는가를 일일이 究明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1930 年을 分水嶺으로 하는 日本資本 輸入過程을 考察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日本資本輸入에 關한 많은 問題들을 捨象하였고 또 日本으로부터의 資本純輸入額+增殖額+評價利益을 가지고 日本資本의 投下額이라고 보는, 즉 日本資本輸入額을 考察하려고 하는 우리의 意圖와는 아주 다른 統計數字의 使用을 서슴치 않았다.

1931 年末現在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投下額은 2,128,792 千圓으로서 그 構成을 보면, 官廳(國庫)投資 897,997 千圓, 會社投資 433,944 千圓, 內地로부터의 流動投資 651,851 千圓, 個人投資 145,000 千圓으로 되어 있다. 日本資本이 朝鮮에 얼마나 投下되어 朝鮮의 產業發展에 얼마만큼 寄與하였는가를 考察할 境遇에 純粹投資로 볼 수 없는 國庫投資를 全額 資本投資로 보는 것은 正當치 못한 方法일 것이나 國際收支의 面에서 資本의 輸入이 貿易 構造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느냐 하는 觀點에서 보면 國庫投資를 投資로 보는 데는 별 困難이 없을 것이나, 우리가 여기서 純粹한 資本輸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會社投資 433,944 千圓과 個人投資 145,000 千圓인 것이다. 會社投資는 本來의 資本輸入額과 再投資額으로 構成되어 있을 것이며 個人投資는 日本人이 赤手空拳으로 朝鮮에 渡航한 以後 朝鮮의 流通機構를 通하여 蓄積한 것이 大部分일 것이다.⁽⁷⁾

이와같이 朝鮮에 投下된 日本人資本이 모두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貿易外去來의 受取支拂金銀의 輸出入殘額, 輸出入差額等 日本資本流入의 原因

(6) 朝鮮銀行調査課, 『朝鮮에 있어서의 內地資本의 流出入에 關하여』 p.4.

(7) 『朝鮮에 있어서의 內地資本의 流出入에 關하여』의 pp. 3-4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今日 內地人의 投資에 있어서 土地投資를 最大로 하는 것은 그 貴風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內地의 資金을 流入시켰던 貢獻이라고 하는 點에서 위와같은 土地投資는 極히 微弱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僅少한 自己資金으로써 高利貸資本으로써 하여 이 收益의 蓄積部分이 再投資된 데 不過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鮮內內地人中 大地主의 人物과 過去를 一瞥하면 누구나 首肯할 것이다. 雖獨 地主분 만이 아니라, 商業의 所謂 成功者의 殆半도 그리하며 內地人個人에 依한 內地資金의 鮮內流入額은 많았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第 10 表>

日本資本 對朝鮮投下 現在額(1941 年末現在)

單位：千圓

國庫資金에 의한投資額	2,071,431
預金部資金에 의한投資額	342,216
會社資本에 의한投資額	3,940,848
日本個人資本에 의한投資額	973,108
其他投資	1,989
合 計	7,329,592

資料：『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投下現況』 pp. 39—40.

1931 年에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의 投下額과 1941 年의 그것과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31 年에는 朝鮮에 投下된 日本人의 總資本額이 2,128,792 千圓에 不過하던 것이 不過 10 年間に 7,329,592 千圓으로 急増하였다. 그 構成에 있어서 특히 刮目할 만한 것은 日本人會社資本의 增加이며 1931 年에 334,038 千圓에 不過하던 것이 1941 年에는 3,940,848 千圓으로 增加하여 10 倍以上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日本人個人投資도 1931 年에는 145,000 千圓에 不過하던 것이 1941 年에는 973,108 千圓으로 增加하여 6 倍以上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 統計數字들이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輸入된 資本量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의 量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1931—1941 年間に 增加된 日本投下資本의 增加分이 바로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輸入된 資本量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統計數字를 指標로 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31 年에 比해 1941 年에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이 約 3.5 倍로 增加한 것으로 보아 이 10 年間に 多量의 日本資本이 朝鮮에 輸入되었다.

둘째,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의 增加中에서 會社資本이 가장 急速度로 增加된 것으로 보아 工業에 對한 日本資本의 投下가 相當하였다.

以上の 두가지 結論을 가지고 우리가 朝鮮植民史의 後期라고 불리우는 1931 年 以後의 貿易商品構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日本商品輸出市場으로서의 朝鮮의 重要性은 別로 變動된 바가 없지만 第 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期에 있어서 보다 後期에 있어서 生産財의 比重이 相當히 커졌으며 1929 年에는 金屬 및 同製品과 機械器具類가 總輸入額의 16.8%에 不過하던 것이 1936 年에는 23.9%로 急激히 增加하였다. 말하자면 後期에 있어서 貿易의 主導의 役割을 하였던 것은 日本의 對朝鮮資本輸出이었다.

日本資本投下市場으로서 朝鮮의 寄與率을 檢討하려면, 日本의 資本輸出中 對朝鮮資本輸出이 차지하는 比率을 計算하면 될 것이나 여기서는 迂迴的인 方法을 使用하여 日本의 資

本財輸出中 對朝鮮輸出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이러한 方法은 間接的接近이라는 缺點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利點이 있을 것이다. 첫째 日本의 資本財輸出構造를 봄으로써 朝鮮의 植民地의 性格을 具體的으로 把握할 수 있고, 둘째 日本資本主義構造와 關聯시켜 朝鮮貿易構造의 發展過程을 考察함으로써 朝鮮에 있어서의 工業建設이 日本資本主義의 一方的要求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輸入된 礦物, 鑛 및 金屬, 金屬製品, 機械類等이 各商品의 日本輸出總額中에 어떠한 比重을 차지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礦物 및 同製品의 輸出總額中에서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第 11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2—1924 年間에는 平均 25.5%에 不過하였으나 1934—1936 年間에는 42.3%까지 上昇하였다. 鑛 및 金屬에 있어서는 第 12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9—1921 年間 平均 10.7%였으나 1928—1930 년에는 36.4%까지 上昇하였다가 1934—1936 年間에는 28.5%로 下落하였다. 金屬製品에 있어서는 그 比重에는 별 變動이 없으나 絕對額은 꾸준히 上

<第 11 表> 日本礦物 및 同製品 輸出總額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 圓

年 度	日本礦物 및 同製品 輸 出 總 額 (A)	對朝鮮輸出 (B)	B/A %
1922—1924	117,160,945	29,897,431	25.5
1925—1927	149,012,617	32,499,075	21.8
1928—1930	145,121,970	36,036,078	24.8
1931—1933	113,586,345	31,090,473	27.4
1934—1936	147,490,000	62,406,000	42.3

註: 實數는 3 個年의 合計인.

資料: 『日本貿易精覽』

<第 12 表> 日本鑛 및 金屬 輸出總額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 圓

年 度	日本鑛 및 金屬 輸 出 總 額 (A)	對朝鮮輸出 (B)	B/A %
1910—1912	50,368,875	1,050,388	2.1
1913—1915	137,078,922	1,394,374	1.0
1916—1918	424,437,961	7,249,259	1.7
1919—1921	152,156,876	16,329,885	10.7
1922—1924	70,399,623	21,696,856	30.8
1925—1927	98,837,468	34,169,079	34.6
1928—1930	158,701,981	57,779,157	36.4
1931—1933	187,437,498	52,805,904	28.2
1934—1936	449,282,000	127,989,000	28.5

註: 實數는 3 個年의 合計인.

資料: 『日本貿易精覽』

昇하여 왔으며 第 1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4—1936 年の 3 年間에는 103,725,000 圓에 達하였으며 機械類에 있어서는 그 比重은 前期에 있어서 보다도 後期에 相當히 強化되었으므로 그 總額은 1934—1936 年の 3 年間に 181,310,000 圓에 達하였다.

<第 13 表> 日本金屬製品輸出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 金屬製品 輸出 總 額 (A)	對 朝 鮮 輸 出 (B)	B/A %
1910—1912	19,058,376	3,867,479	20.3
1913—1915	29,051,939	9,491,254	32.7
1916—1918	115,455,625	9,229,944	8.0
1919—1921	145,205,218	23,731,289	16.3
1922—1924	98,725,233	27,912,046	28.3
1925—1927	112,056,710	33,485,365	29.9
1928—1930	135,035,367	45,683,185	33.8
1931—1933	142,651,150	42,196,129	29.6
1934—1936	340,523,000	103,725,000	30.5

註：實數는 3 個年の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第 14 表> 日本機器輸出總額中 對朝鮮輸出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機器輸出總額 (A)	對 朝 鮮 輸 出 (B)	B/A %
1910—1912	21,114,849	4,520,661	21.4
1913—1915	32,077,280	6,056,849	18.9
1916—1918	295,409,450	21,271,368	7.2
1919—1921	171,418,963	23,437,312	13.7
1922—1924	104,058,524	26,731,404	25.7
1925—1927	147,212,372	42,712,213	29.0
1928—1930	216,401,065	78,127,611	36.1
1931—1933	229,152,041	67,483,811	29.4
1934—1936	687,375,000	181,310,000	26.4

註：實數는 3 個年の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前期에 있어서 보다도 後期에 있어서 生産財의 輸入比重이 上昇하였다는 것은 日本資本輸入에 同伴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上記의 礦 및 同製品, 鑛 및 金屬, 金屬製品 및 機械類가 各各 日本輸出의 30% 内外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은 무엇을 말하는가? 日本은 當時 貿易에 있어서 對先進資本主義諸國에 對해서는 從屬의 立場을 取하고 있었기 때문에 對先進資本主義諸國에 重工業商品을 輸出한다는 것은 不可能하였다. 그러므로 織物等 輕工業生産物로서 對先進資本主義諸國과 弱勢의 立場에서 交易하는 한편 朝鮮

滿洲, 關東州, 臺灣에 對해서는 帝國主義의 立場을 堅持하였던 것이다. 以上의 統計數字는 이러한 事實을 證憑하는 것이라 하겠다

III. 日本金融獨占資本의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의 朝鮮

古典的 植民地貿易의 本質은 植民母國이 植民地로부터 食糧 및 原料를 끊임없이 收奪하여 갔다는 事實이다. 第2次 世界大戰以後에 先進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 化學工業의 革命的 發達과 農業技術의 飛躍的 發展을 通하여 古典的 植民地는 이미 崩壞되고, 古典的 帝國主義理論은 이미 낡아빠졌다고 하지만, 새로이 登揚한 帝國主義諸國도 그 本質에 있어서는 古典的인 것과 同一한 것이며 植民地의 諸形態의 消滅에도 不拘하고 實質的인 植民地의 諸關係는 아직도 그대로 溫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歷史의 發展過程과 더불어 形態의 諸變化를 가져온 植民地와 植民母國과의 關係를 古典的 外皮속에 틀어넣는다는 것은 理論의 正當性을 爲하여 事實을 歪曲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排擊하여야 할 것이나, 古典的 植民地의 本質究明을 爲하여 古典的 帝國主義理論을 應用하는 것은 어느 一面에 있어서 妥當性을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帝國主義段階에 들어선 資本主義가 수많은 屬性의 變質過程을 겪고서도 依然히 그 本質에 있어서 同一한 過程을 反覆하였다면 理論의 創造的 發展이 있을 뿐이지 修正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朝鮮과 日本과의 貿易을 보면 第1次開港期, 즉 商館貿易期에 있어서 輸出中 大宗을 이루고 있는 것은 米, 豆類等의 穀物 및 金, 銀等의 鑛山物이며 手工業製品인 織物도 多少 輸出되기는 하였으나 半製品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第2次開港期에 있어서는 前期에 多少 輸出을 보였던 手工業製品 및 鑛山物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農產物이 10%內外를

〈第 15 表〉 輸出品中 米 및 大豆의 地位 單位: 圓

年 度	輸出總額	農 產 物	對 總 額 比	米	對農產物 比	大 豆	對農產物 比
1893	1,698,116	1,502,080	0.88	367,165	0.24	628,324	0.41
1894	2,311,215	2,119,460	0.91	999,292	0.46	506,888	0.23
1895	2,481,808	2,315,955	0.93	738,830	0.31	923,695	0.39
1896	4,728,700	4,532,734	0.95	2,509,343	0.55	1,277,071	0.28
1897	8,973,895	8,712,628	0.97	5,556,700	0.66	1,710,121	0.19
1898	5,709,489	5,428,352	0.95	2,759,046	0.50	1,124,048	0.20
1899	4,997,845	4,508,772	0.90	1,417,842	0.31	1,974,863	0.43
1900	9,439,867	8,696,837	0.92	3,625,629	0.41	2,368,545	0.27
1901	8,461,949	7,687,066	0.90	4,187,353	0.54	1,890,674	0.24
1902	8,317,070	7,848,808	0.94	3,524,619	0.44	1,818,081	0.23

註: 各統計數字는 『朝鮮貿易年表』와 『韓國外國貿易年表』에 따라 조금씩 相異하다.
資料: 加藤宗郎, 『韓國農業論』

여 보면, (1) 米 大豆를 中心으로 하는 日本食糧供給地로서의 朝鮮輸出貿易과 (2) 金 鐵 鑛 特殊鑛山物을 中心으로 하는 日本工業原料市場으로서의 朝鮮輸出貿易으로 構成될 것이다.

1. 日本食糧供給地로서의 朝鮮

日本이 食糧不足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日本經濟가 資本의 原始的 蓄積過程을 겪으면서였다. 日本의 食糧不足現狀을 보면 主穀인 米穀이 1883—1887 年間に 年平均 488 千石이 不足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의 食糧不足은 朝鮮으로부터의 食糧收奪에 依하여 充足되었던 것이며 朝鮮에서는 1910 年의 土地調査事業에 의한 生産手段인 土地의 大量收奪과 1917 年 日本의 米穀騷動으로 發端된 產米增殖計劃에 의하여 解消되었던 것이다.

朝鮮米의 對日輸出이 日本食糧問題에 얼마나 寄與하였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米의 對日本輸出量이 日本米穀輸入量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第 17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1912 年에는 12.1%에 不過하였으나 日本에 米穀騷動이 일어나 朝鮮에 產米增殖計劃이 樹立된 以後, 50%以上에 達하였다.

<第 17 表> 日本米穀輸入總額中 朝鮮米가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米穀輸入 總額(A)	朝鮮에서의 輸入(B)	B/A %
1910—1912	92, 822, 913	11, 236, 797	12.1
1913—1915	156, 867, 370	46, 998, 313	30.0
1916—1918	232, 634, 843	88, 869, 164	38.2
1919—1921	548, 407, 557	268, 560, 083	49.0
1922—1924	618, 656, 356	370, 091, 206	59.8
1925—1927	1, 009, 243, 926	556, 055, 711	55.1
1928—1930	658, 759, 500	441, 477, 241	67.1
1931—1933	641, 743, 677	435, 928, 230	67.9
1934—1936	1, 052, 622, 960	711, 843, 960	67.6

註：實數는 3 個年分의 統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1931—1933 年間에는 67.9%였으며, 1934—1936 年에는 67.6%였다. 그리고 大豆의 對日 本輸出額이 日本의 大豆輸入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第 18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1936 年間 平均 30—35%이었다.

이와 같이 韓日合併以後에, 朝鮮은 名實 共히 日本의 穀倉으로서 役割하여 왔다는 것은 統計數字가 證明하는 바이지만 植民母國이 植民地의 食糧을 얼마나 徹底하게 收奪하였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 19 表는 朝鮮에 있어서 米 및 大豆의 生産量에 對한 米 및 大豆의

〈第 18 表〉 日本大豆輸入總額中 朝鮮大豆가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大豆輸入總額(A)	朝鮮으로부터의 輸入(B)	B/A %
1910—1912	41,797,544	14,243,425	34.1
1913—1915	38,611,638	14,460,870	37.5
1916—1918	47,394,082	24,569,918	51.8
1919—1921	135,180,640	60,623,404	44.8
1922—1924	182,886,333	67,605,935	37.0
1925—1926	210,627,720	67,368,787	32.0
1928—1930	210,340,519	62,895,987	29.9
1931—1933	150,616,248	53,523,125	35.5
1934—1936	214,332,161	59,004,161	27.5
1937—1939	319,307,751	66,528,440	20.8

註：實數는 3 個年の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大日本帝國統計年報』 및 『朝鮮貿易年表』

〈第 19 表〉 米·大豆收穫高 對 對日本輸出量의 比率 單位：%

年 度	米	大 豆
1911—1915	10.8	34.9
1916—1920	12.5	23.5
1921—1925	26.5	30.4
1926—1930	36.5	32.8
1931—1935	48.2	33.9
1936—1940	34.6	28.7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및 『朝鮮貿易年表』에서 作成함.

對日本輸出量의 比率이다.

米穀에 있어서는 1911—1920 年까지 朝鮮의 生産總額에 대한 對日本輸出額이 10%를 조금 上廻하였으나 1921 年以後 1939 年에 이르기까지는 年平均 35%를 上廻하고 있으며 1931—1935 年間에는 年平均 48.2%에 이르고 있다. 大豆에 있어서는 그 比率이 日本殖民地時代의 前後期를 通하여 별다른 變動은 없었으나, 對日本輸出額이 生産量에 대하여 年平均 30%를 上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史實은 日本殖民地時代に 있어서 米 및 大豆의 輸出이 輸出總額의 50%内外를 占하고 있었다는 事實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重要한 結論에 到達할 수가 있다. 즉 朝鮮은 日本의 穀倉이었다는 것이다.

2. 原料供給地로서의 朝鮮

原料供給地로서의 朝鮮의 地位는 食糧供給地로서의 朝鮮의 地位보다 못하기는 하나, 合併以前부터 日本은 朝鮮의 農產物原料財 및 鑛產物을 收奪하여 갔다. 前期에 있어서는 牛皮와 棉花 및 繭을 中心으로 하는 農產物原料財의 收奪이 爲主였으나 後期에 와서는 鑛產

物의 收奪이 爲主였다 그러나 日本工業의 原料로서 보다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은 鑛產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鑛產物의 輸出만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朝鮮의 鑛山資源은 比較的 豊富하다. 日本의 某地質技師는 朝鮮과 日本의 鑛產物資源을 比較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朝鮮鑛山物資源을 日本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면, 朝鮮에 많은 「텅스텐」鑛, 螢石, 黑鉛, 雲石, 霞石, 藍晶石, 「마그네사이트」, 磷灰石, 重晶石은 日本에서 產出되지 않으며 朝鮮에 比較的 많은 明礬岩 硅砂 含稀有元素鑛物 滑石도 日本에는 賦存量이 缺乏되어 있으며 金, 銀 및 鐵鑛은 日本에서도 상당히 生産되나 朝鮮은 生産量 및 埋藏量에 있어서 日本을 凌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日本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豊富한 鑛產資源을 發掘하기 위하여 1910年 韓日 合併以前 西歐先進資本主義諸國은 朝鮮에 속속 進出하여 1910年에 朝鮮金鑛產物總額의 62%를 生産하게 되고 1914년에는 그의 75%를 生産하기에 이르렀다. 日本은 이러한 先進資本主義諸國의 활발한 進出을 抑制하기 爲하여 1915年 朝鮮鑛業令을 發布하여 外國人의 新規鑛業權取得을 禁止하고 朝鮮人의 新規鑛業權取得을 抑制하여 오다가 1936年의 朝鮮鑛產令, 1940年의 重要鑛物增產令 및 1941年의 朝鮮鑛業令의 大改革等을 契機로 鑛產資源의 開發을 積極的으로 促進하였다.

이와같이 日本人의 朝鮮鑛產資源의 積極的 開發은 1935年以後 世界「블록」化의 激化로 因한 日本外貨獲得의 困難과 그로 因한 戰爭雲圍氣의 高潮로 戰略物資確保의 必要에서 出發하였다고는 하나, 1920年以前에도 兼二浦製鐵所 長項製鍊所等의 建設로 金鑛 鐵鑛 및 石炭等 一部 鑛產物은 積極的으로 開發되어 왔다.

朝鮮에서 採鑛된 鑛產物의 對日本輸出狀況을 보면 1920年以前에는 對日本輸出額이 鑛物生産總額의 10—15%에 不過하였으나 第20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年以後에는 30—50%에 達하고 있다.

時期別로 보면 前期에서보다 後期에서 鑛產物의 對日本輸出比率이 차차 強化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935年以後에는 그 輸出量의 莫大한 增加로 보아 輸出比率이 훨씬 強化된 것으로 보이나, 不幸히도 生産統計가 缺乏되어 있으므로 그 趨勢를 알 수 없다.

朝鮮鑛產物의 對日本輸出額이 日本의 鑛產物輸入額에서 어떠한 比重을 차지하였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鐵鑛은 第2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1912年에 朝鮮의 對日本輸出額이 日本總輸入額에 대하여 23.1%에 達하였으나 1922年以後에는 차차 下降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1934—1936年間에는 겨우 3.4%에 不過하다. 이와같이 鐵鑛의 對日本輸出額이 1922年以後에는 日本鐵鑛輸入額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減少하고 있을 뿐만이 아

<第 20 表> 鐵, 金屬의 對日本輸出額의 生産總額에 對한 比率 單位: 圓

年 度	生 産 額 (A)	移 出 總 額 (B)	B/A %
1922	45,026,683	14,959,869	33.2
1923	41,217,980	11,916,226	28.9
1924	42,143,943	13,108,849	31.1
1925	45,576,475	15,050,613	33.0
1926	49,409,590	15,715,182	31.8
1927	48,963,924	15,060,524	30.8
1928	50,644,611	18,737,383	37.0
1929	52,853,322	20,411,409	38.6
1930	41,154,879	16,545,886	40.2
1931	37,325,399	13,831,297	37.1
1932	49,818,345	18,762,378	37.7
1933	68,551,432	25,390,072	37.0
1934	91,305,939	40,915,666	44.8
1935	132,591,308	67,583,956	51.0

資料: 『朝鮮貿易年表』 및 『朝鮮經濟年報』 1948 年度

<第 21 表> 日本鐵鑛輸入總額中 朝鮮으로부터의 輸入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 圓

年 度	日本鐵鑛輸入總額 (A)	朝鮮으로부터의 輸入 (B)	B/A %
1910—1912	4,030,868	930,184	23.1
1913—1915	6,358,899	1,232,309	19.4
1916—1918	15,707,005	1,902,258	12.1
1919—1921	48,518,275	7,400,698	15.3
1922—1924	28,170,479	2,488,297	8.8
1925—1927	28,482,141	2,776,374	9.7
1928—1930	59,159,808	4,696,274	7.9
1931—1933	41,685,766	4,187,325	10.0
1934—1936	97,329,903	3,318,903	3.4

註: 實數는 3 個年의 合計인.

資料: 『日本貿易精覽』

나라 그 絕對額까지도 減少하고 있는 것은 1919 年의 兼二浦製鐵所의 操業等 朝鮮에서 原鑛을 加工하여 銑鐵 및 鐵鋼材를 日本으로 輸出하였기 때문이다.

銑鐵의 同比重은 第 22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9—1921 年間に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31—1933 年間에는 22.7%까지 上昇하였고, 石炭의 比重은 第 2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1912 年間에는 15.9%를 차지하였으나 그 中間에는 4.6%까지 下落하였다가 1934—1936 年間에는 11.1%까지 上昇하였다.

끝으로 鑛産物 및 金屬의 對日本輸出이 日本의 鑛産物 및 金屬輸入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第 24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1912 年에는 2.3%에 不過하였으나 1934

<第 22 表> 日本銑鐵輸入總額中 朝鮮으로부터의 輸入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銑鐵輸入總額 (A)	朝鮮으로부터의 輸入(B)	B/A %
1919—1921	130,681,013	19,629,940	15.0
1922—1924	74,760,022	16,456,493	22.0
1925—1927	70,235,996	15,003,922	21.4
1928—1930	88,885,026	19,349,440	21.8
1931—1933	62,946,290	14,291,656	22.7
1934—1936	131,111,020	21,339,020	16.4

註：實數는 3 個年の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1936 年間에는 11.5%까지 上昇하였다.

위의 諸統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朝鮮의 鑛產物이 日本의 鑛產物輸入額의 5—10% 内外를 占하고 있음에 不過하기는 하나 朝鮮鑛產物生産總額의 30—50%가 原鑛대로 日本

<第 23 表> 日本石炭輸入總額中 朝鮮으로부터의 輸入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石炭輸入總額 (A)	朝鮮으로부터의 輸入(B)	B/A %
1910—1912	6,485,508	1,031,429	15.9
1913—1915	16,613,197	1,424,426	8.6
1916—1918	30,997,494	1,473,598	4.8
1919—1921	585,045,531	3,047,832	5.2
1922—1924	79,736,146	3,701,650	4.6
1926—1927	99,070,968	6,635,870	6.7
1928—1930	123,646,998	7,831,554	6.3
1931—1933	105,859,135	11,451,806	10.8
1934—1936	168,583,213	18,723,213	11.1

註：實數는 3 個年の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第 24 表> 日本의 鑛, 鑛 및 鑛輸入總額中 朝鮮으로부터의 輸入이 차지하는 比率 單位：圓

年 度	日本 輸入 總額(A)	朝鮮으로부터의 輸入(B)	B/A %
1910—1912	208,649,148	4,742,301	2.3
1913—1915	238,669,996	6,118,272	2.6
1916—1918	897,248,204	52,772,105	5.9
1919—1921	1,041,152,456	59,540,557	5.7
1922—1924	833,873,701	39,984,944	4.8
1925—1927	773,126,355	45,826,319	5.9
1928—1930	898,754,975	55,694,676	6.2
1931—1933	679,809,979	57,983,747	8.5
1934—1936	1,558,230,950	179,168,952	11.5

註：實數는 3 個年の 合計임.
資料：『日本貿易精覽』

에 輸出되고 또 1929年에는 朝鮮의 鑛產物輸出額이 朝鮮輸出總額의 20%以上을 占하고 있다는 事實은 朝鮮이 日本의 原料供給地라는 것을 證明하고 있다.

朝鮮의 輸出總額中에서 食糧이 50%內外를, 鑛產物이 20%內外를 각각 占하고 있다는 事實은 朝鮮이 日本의 食糧 및 原料供給地라는 것을 雄辯하고 있는 것이다.

IV. 依存經濟體制

日本의 商品 및 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과, 日本의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의 朝鮮을 統一하여 그 本質을 究明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의 商品 및 資本投下市場으로서의 朝鮮은 日本에서 創造된 剩餘價値實現市場으로서의 朝鮮이며, 日本의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의 朝鮮은 創造된 剩餘價値의 對日流出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의 條件은 日本에서 創造된 剩餘價値의 實現과 그 剩餘價値에 依한 朝鮮의 自然資源 및 生産手段의 支配過程이며, 둘째의 條件은 朝鮮의 自然資源 및 生産手段의 強制的 支配에 依한 剩餘價値의 搾取過程인 것이다. 말하자면 日本資本가에 依한 朝鮮自然資源 및 生産手段의 支配 및 剩餘價値의 搾取過程, 바로 이것이 朝鮮이라는 植民地의 歷史이다.

이러한 本質을 가진 植民地와 植民母國과의 關係는 植民地 保護領 租借地 聯邦等の 諸形態를 가질 수 있지만, 現代에는 이러한 名稱의 惡名을 꺼려하여 獨立國相互間的 平等한 經濟關係로 假裝하는 수도 많다. 그러나 그 名稱의 如何에도 不拘하고 兩國間的 關係에 있어서, 보다 發展한 國家가 보다 落後된 國家를 實質적으로 支配하고 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規定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諸民族相互間的 依存성과 領土의 經濟的 統一은 資本主義發達途上에 있어서 諸民族이 同權을 單位로 하여 協力한다고 하는 方法이 아니고 어떤 民族이 他民族에 대한 從屬이라고 하는 方法, 즉 發展이 뒤떨어진 諸民族의 보다 發展한 諸民族에 依한 壓迫과 搾取라는 方法에 依하여 建設되는 것이다. 植民地의 掠奪과 強奪, 民族의 壓迫과 不平等, 帝國主義的 專橫과 強制, 植民地의 奴隸狀態와 民族의 無權利, 最後에 「非文明」諸民族의 支配를 둘러싼 「文明」諸國間的 鬭爭——諸民族의 經濟的 發展過程의 進展은 이러한 形態의 틀 안에 있는 것이다.』

發展이 뒤떨어진 民族의 보다 發展한 民族에 對한 依存성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諸要因에 依하여 規定될 것이지만, 모든 社會關係의 土臺를 이루고 있는 經濟的 依存關係만을 考察해 보코자 한다. 經濟的 依存關係는 具體적으로 分析하여보면, 貿易構造 工業構造 農業構造等の 依存關係로 構成된다.

貿易構造는 貿易地域別構造와 貿易商品別構造로 大別할 수가 있다. 貿易構造의 依存性을 檢討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貿易의 形成方法을 우선 檢討하는 것이 重要하겠지만 日本植民地時代に 있어서 韓日貿易關係를 이미 植民地的 關係로 規定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植民地的 貿易關係의 內容을 檢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地域別貿易構造를 보면 第 25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入 모두 對日貿易이 壓倒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關東州 滿洲 中國에 대한

<第 25 表> 輸 入 商 品 地 域 構 造 單位：%

年 度	輸 出				輸 入			
	日 本	關 滿 支	歐 美 加	其 他	日 本	關 滿 支	歐 美 加	其 他
1912	72.9	19.4	0.4	7.3	60.0	9.3	28.4	2.3
1919	92.6	6.3	0.2	0.9	64.7	21.2	12.1	2.3
1929	90.5	9.5	0.0	0.0	74.2	17.4	4.3	3.7
1935	88.6	10.9	0.1	0.4	84.8	10.5	1.9	1.8
1939	73.5	25.8	0.4	0.3	88.8	6.5	2.0	1.6

註：① 關滿支 및 歐美加는 關東州, 滿洲, 支那; 歐羅巴, 美國, 「카나다」의 略字임.

② 地域別輸入構造의 比率合計가 100%에 未達하는 것은 保稅倉庫에 들어가는 輸入品の 輸出地가 不明이기 때문이다.

資料：『朝鮮貿易年表』

貿易이며 日本經濟圈內의 貿易이다. 歐羅巴 美國 「카나다」를 中心으로 하는 對先進資本主義와의 貿易도 輸入貿易에 있어서는 1919년까지 10—30%를 차지하여 상당히 활발하였으나 1929年 以後 4.3%로 激減하였다.

이와같이 朝鮮貿易의 地域別構造는 日本經濟圈內의 貿易 특히 對日本貿易이 거의 全部였다.

朝鮮貿易의 商品別構造를 보면 앞에서 指摘된 바와 마찬가지로 輸出貿易에 있어서는 米, 大豆를 中心으로 하는 食糧과, 鑛, 金屬을 中心으로 하는 鑛産物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輸入貿易에 있어서는 綿織物을 中心으로 하는 消費財와 金屬, 金屬製品, 機械를 中心으로 하는 投資財가 거의 全部였다.

말하자면 朝鮮은 日本의 商品 및 資本의 投下市場에 不遇하였다. 뿐만 아니라 日本은 朝鮮의 自然資源 및 生産手段을 獨占하고 그들이 意圖하는 바에 따라, 朝鮮經濟를 支配하였던 것이다.

朝鮮의 工業構造를 보면 第 26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5년에는 食料品工業 紡織工業等 消費財工業이 60%以上을 차지하였으나 1940년에는 生産財工業도 상당히 發展하여 金屬工業 機械工業 化學工業이 53.3%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近代工業의 骨格을 形成하

<第 26 表>

重要工業의 自給度

單位：%

年 度	食料品工業	紡織工業	金屬工業	機械工業	化學工業
1929	78.9	37.3	27.0	22.0	48.3
1935	82.1	39.4	26.9	14.7	58.4
1939	84.7	48.8	35.2	20.8	74.6
1941	95.1	55.9	59.5	24.7	82.8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貿易年表』, 『朝鮮經濟年報』 1948 年度

는 金屬工業의 生産額은 全工場生産額의 8.9%에 不過하며 機械工業은 4.3%에 不過하다.

이러한 工業構造의 畸型性を 各工業의 自給도와 比較하여 보면 그 畸型性は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朝鮮工業의 自給度を 보면 第 26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5 年보다 1939 年에는 약간 向上된 편이나 의연히 金屬工業 機械工業 紡織工業에 있어서는 50%未滿이다. 1939 年에 各工業의 自給度を 보면 紡織工業은 48.8%, 食料品工業은 84.7%, 金屬工業은 35.2%, 化學工業은 74.6%에 不過하다. 특히 自給도가 낮은 것은 金屬工業 및 機械工業이다.

우리는 工業의 生産構造를 볼 때에 生産財뿐만 아니라 消費財까지도 輸入하였다는 事實을 發見한다.

農業의 構造를 보면 半封建的 地主制를 媒介로 하는 小農經濟가 支配的인 形態를 取하고 있었다. 地主의 國籍別構造를 보면, 大地主는 거의 日本人이었으며 中小地主는 朝鮮인이 많았다. 日本人의 土地所有比率을 보면 第 27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1 年末現在 田에 있어서는 朝鮮民有地의 12.2%이며, 畓에 있어서는 73.7%이다.

日本人은 이와같이 朝鮮耕作地의 2 分の 1 以上을 所有하고, 대개가 半封建的 地主에 의하여 占有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朝鮮農業生産의 沮害要因이 무엇인가를 看破할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의 農村을 榨取하는 것은 半封建的 地主만이 아니었다. 都市金融資

<第 27 表>

日本人朝鮮土地所有狀況 (1941 年末 現在)

單位：千町

	田	畓
民 有 地 面 積	2,709	1,765
日 本 人 會 社 所 有	220	900
日 本 人 個 人 所 有	110	400

資料：『朝鮮에 있어서의 内地資本投下現況』

本에 의한 榨取가 그것이며 商品攻勢 高利貸 租稅等을 通하여 朝鮮農村은 必要勞動까지도 收奪당하였다.

<Summary>

A Study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Japanese Colonial Control in Korea

*Byong-Jick Ahn**

As a younger student of colonial history, I am deeply interested in the modern colonial history of Korea whose destiny depended upon the history of capitalism in Japan. Among the various types of colonies, the most interesting type of colony to the student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may be the colony that was founded upon feudal society by the western or eastern imperialism. The typical colonies of this are Korea, India, China, Indonesia, Indo-China, though China was half-colonial nation.

This type of colonies went through the three stages of development, as the western capitalism developed from commercial capitalism and industrial capitalism to imperialism. Of the three stages of the colonial development, the third stage of them is the subject of our study, not only because it, as the nearest past of the colonial nations, is the causes of their poverty and misery, but because the study of it will illuminate the way of winning them.

Socialists and critical "bourgeois" economists of colonization alike agree on the following conclusion of the studies of colonization.

(1) Where the western or eastern capitalists were faced by established society with rich and ancient cultures, still precapitalist or in the embryonic state of capitalist development, they rapidly determined to extract the largest possible gains from the host countries, and to take their loot home. Thus they engaged in outright plunder or in plunder thinly veiled as trade, seizing and moving tremendous wealth from the places of their penetrations.

* The author is instructor of economic history,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2) For the unilateral transfers of wealth from the colonial countries to the imperial capitalists provide the prerequisites of capitalism in the precapitalist or in the embryonic state of capitalist development.

By breaking up the age-old patterns of the agricultural economy, and by forcing shifts to the production of exportable crops, Western capitalism destroyed the self-sufficiency of the rural society that formed the basis of precapitalist order in all countries of its penetration, and rapidly widened and deepened the scope of commodity circulation. By outright—in many countries, massive—seizure of peasant-occupied land for plantation purposes and other uses by foreign enterprise and by exposing their rural handicrafts to the widening competition of its industrial exports, it created a vast pool of pauperized labor. Enlarging thus the area of capitalist activities, it advanced the evolution of legal and property relation attuned to the needs of a market economy and establishe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required for their enforcement. Only in order to expand and tight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grip on the areas of its domination, it forced the diversion of some of their economic surplus to the improvement of their systems of communication, to the building of railroads, harbors, and highways, providing thereby as a by-product the facilities needed for profitable investment of capital.

(3) Accelerating with irresistible energy the maturing of some of the basic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a capitalist system, the intrusion of Western capitalism in the now underdeveloped countries blocked with equal force the ripening of other. The removal of a large share of the effected countries' previously accumulated and currently generated surplus could not but cause a serious setback to their primary accumulation of capital. Their being exposed to ruinous competition from abroad could not but smother their fledgling industry although the expansion of commodity circulation, the pauperization of large numbers of peasants and artisans, the contact with western technology, provided a powerful impetus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is development was forcibly shunted off its normal course, distorted and crippled to suit the purposes of Western

imperialism.

Based on the above three general conclusions of the studies of colonial history, we can propose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What importance had the colonial countries to the imperial as the markets of goods and capital investment of the imperial? How much devoted the colonial countries to the imperial as suppliers of foods and raw materials to the imperial? What were the economic conditions on the part of the colonial countries that enabled the imperial powers to do the above.

This thesis aims to illuminat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colonial period and the legaci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control which now are the causes of the poverty and misery of Korea.

I. Korea as a market of the goods and capital investment of Japanese capitalism

Korea as a market of Japanese capitalism went through two stages: Korea as a market of consumption goods of Japan and as a market of capital investment of her. The first stage begins roughly in 1876 and ends in 1929; the second begins in 1930 and ends in 1945. The demarkation of the stages is based on the importance of Korean market as the market of Japanese consumption goods or that of her production goods. The statistics of foreign trade of Korea show that in the constitution of imported goods from Japan the share of consumption goods always exceeds that of production goods over the whole period of her colonial control.

But capital import accompanies not only the import of capital goods, but also that of consumption goods. The constitution of imported goods from Japan does not matter here. The important criterion of the period demarkation lies on the role of each commodity by which the foreign trade was led.

The importance of Korea as a Japanese export market is appreciated by the proportion of the whole export of Japan which is destined to Korea. The statistics of foreign trade show that the importance of Korea as a Japanese export market

steadily increased from 6.1% in 1910—12 to 21.5% in 1934—36. After 1930 Korea was a largest foreign market of Japan. But the importance of Korea as a foreign market of Japan does not limit to the proportion of Japanese export of which Korea had taken. When we scrutinize the statistics of foreign trade, we find that the proportion of Japanese export of which Korea had taken increased or decreas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Japanese foreign trade, though the proportion of which Korea had taken increased steadily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control. The proportion increased in the year of depression and decreased in the year of boom. That is, Korea as the foreign market of Japan should sacrificed her own interest for sake of that of Japan.

Korea as a foreign market of Japanese consumption goods had taken an important role. The proportions of consumption goods of the imports which were taken from Japan were 66.3% in 1919, 58.7% in 1929, 52.7% in 1935 and 49.8% in 1939, of which the shares of the goods of secondary industry were 55.5%, 47.7%, 41.2%, 38.0% and 38.3% respectively. Of the consumption goods, tissues, clothing, yarn, sugar and manufactures thereof and wine were the main stocks. Each of tissues and manufactures thereof, clothing and accessories thereof, yarn and the like, which were imported to Korea, took 10%, 18.1%, and 7.4% of the whole exports of each commodity in 1934—36. The tissues and manufactures thereof took 30—40% of the whole imports from Japan in the same period.

From the above, we can conclude that Korea was not only the largest foreign market of Japanese capitalism, but also the safety-value of it.

Returning to the capital import from Japan, the active import of it had begun in 1930. The year of 1930 was not only the turning point of the world capitalism, but also that of the Japanese. As the depression of 1929 which was begun in the weakest link of capitalism prevailed all over the world, there were large stocks of capital in capitalist country which sought the investment opportunity. The financial capital of Japan found it in Korea.

The capital imports of Korea from Japan began as early as 1882. But until

1930 the amount of them was not so great, and they themselves were small and medium-sized. The imports of large monopolistic capital were few but social overhead capital.

The statistics of capital imports from Japan proves that the capital which was invested in Korea by the Japanese amounted to 7,329 million *yen* in 1931. Because these statistics show only the volume of the Japanese investment in Korea, which consisted in original capital investment, reserve funds and valuation profit, they do not tell how much capital imported from Japan, but we can use them as indicators which reflect the capital imports from Japan. Moreover, when we compare the capital imports from Japan based on the capital investment by the Japanese, we should remind that, of the capital investment which was done until 1931, the Japanese capital made in Korea was great. The capital investment by the Japanese in Korea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ir colonial control was made in the process of the "primitive accumulation" in which capital was accumulated in the hand of capitalists by plunder, violence, deception, usury, etc. This gives positive proof of the fact that the active capital imports from Japan began after 1930.

Capital imports usually accompany the imports of capital goods. According to the foreign trade statistics, the proportion of capital goods of the whole imports increased from 31.3% in 1912, 34.6% in 1919, 33.6% in 1929 and 38.0% in 1935 to 43.9% in 1939. Especially the increase in machinery imports was very high: from 5.7% in 1912, 9.2% in 1919, 7.1% in 1929 and 8.8% in 1935 to 14.1% in 1939. The above statistics show that the increase of capital goods imports show comparatively rapid increase after 1935. This is not the whole story. In the early stage of the colonial control, the large capital goods importing countries were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capital goods imports from Japan were very little. If we consider this, we find that the capital goods tell that imports from Japan increased faster than the above statistics tell.

By 1931 the capital invested in Korea by the Japanese amounted to 2,128 million *yen*. It consisted of exchequer investment, investment by corporate bodies,

floating capital and investment by noncorporate bodies. The capital investment of them amounted to 898, 434, 625 and 433 million *yen*, respectively. Of the investment of corporate bodies, the capital invested in manufacturing was 26.9% of it, and others were invested in land, commerce and banking. But in 1941 the investment of corporate bodies amounted to 3,941 million *yen* which is compared to the 434 million *yen* in 1931. From the above statistics we can conclude that after 1930 the capital investments in Korea by the Japanese were conducive to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in spite of its distortion, while before 1930 they engaged in the expor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accumulated wealth in Korea by means of plunder, violence, deception, usury, etc.

The contribution of Korea as a foreign market of Japanese investment can be appraised by the share taken by Korea of the whole foreign capital investment of Japan. But we are to appraise it with the proportion taken by Korea of the whole exports of capital goods of Japan. The method of the latter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colonial attributes of the capital imports from Japan.

The main stocks of capital goods imports from Japan were minerals and manufactures thereof, ores and metals, metal manufactures, and machinery.

The proportion of minerals and manufactures thereof of the whole export of the same commodity from Japan which is destined to Korea increased from 25.5% in 1922—24 to 42.3% in 1934—36, that of ores and metals from 10.7% to 28.5%, that of metal manufactures from 8.0% in 1916—18 to 30.5% in 1934—36, and that of machinery from 7.2% in 1916—18 to 26.4% in 1934—36.

The above statistics show that the share of capital goods imports of Korea from Japan exceeds on the average 30% of the whole capital goods exports of Japan during the later period of the colonial control of Korea.

This reflects that the economic structure of Japan was subordinate to the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and imperial to Korea and other Far Eastern countries.

II. Korea as a supplier of foods and raw materials of Japanese capitalism

From the early days of the modern trade Korea supplied foods, mineral products and gold-and-silver to Japan. Agricultural raw materials, e.g. various kind of hides and cotton, were important exportable commodities. But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control rice and beans and pulses were the main stocks of exportable commodities, while minerals gained the importance as exportable commodities in the later period of it.

Korea as a supplier of foods to Japan gives the worth of the name of Korea as a colony of Japan. Rice alone takes about 50% of the whole exports of Korea. And the rice which was exported to Japan occupied nearly 30% of the whole output of her. The export of beans and pulses occupied 30% of the whole output of her.

The contribution of Korea as a supplier of foods to Japan is appraised by the following. The rice export from Korea to Japan takes 67.9% in 1931—39 and 67.6% in 1934—36 of the shortage of that of Japan. That of beans and pulse takes 30—35% of the shortage of that of Japan on the average over the years of 1910—36.

Korea as a supplier of the raw materials to the Japanese industry had also an important role. Comparing with Japan, minerals produced in Korea were abundant not only in their kind but also in their deposits. The proportion of the mineral export to its output of Korea reached to 10—15% before 1920, but after 1920 it reached to 30—35%. The contribution of the mineral export to Japan was 5—10% of the whole imports of Japan.